

국내 바이오 예산 미국의 2% 수준

SERI, 선진국과 투자차이 최소 10년 ... 2010년 세계시장 3400억달러

21세기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이 2010년 34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지만 국내 바이오 예산은 미국의 2% 수준에 불과하고 선진국들과의 투자 차이도 최소 10년이나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가 10월27일 발표한 <바이오 신사업 기회와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신약, 바이오치료, U(유비쿼터스)-헬스,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바이오기기, 바이오환경·에너지, 바이오공정 등 7개 주요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은 2010년 34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2003년 바이오 분야에 대한 국내 공공연구개발 예산은 4962억원으로 2000년 25조200억원에 달했던 미국의 2%에 그쳤고 2000년 일본의 3조107억원, 독일의 8083억원보다도 훨씬 적어 투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LG와 CJ 등을 제외한 국내기업들도 바이오 사업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 소규모 투자나 사업 타당성 검토에 그치고 있어 국내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최소 10년이나 뒤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건강 중시 경향, 고령화 사회 도래 등을 감안하면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고 선진국들도 정보기술(IT)보다 바이오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는 만큼 바이오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7개 유망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단백질·호르몬 등 생체물질을 활용하여 약물을 개발하는 바이오신약 ▷세포치료·유전자치료·장기이식 등 바이오치료 ▷유비쿼터스 컴퓨터 환경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U-헬스 ▷유전자변형 동·식물을 만드는 GMO 등 4개를 핵심사업으로 지목했다.

이와 함께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전자의료기기, 유전자분석기 등 바이오기기 ▷바이오기술을 활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는 바이오환경·에너지 ▷바이오기술을 이용해 기존 소재를 대체하는 바이오공정 등 3개 분야도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는 일정 수준을 넘어야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IT산업은 따라잡는 것이 가능했지만 바이오는 원천기술을 확보해야만 승산이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유상 연구원은 “바이오기술(BT)과 IT가 융합된 기술, 바이오치료 등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를 특화하고 기업과 대학의 제휴 강화, 바이오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학저널 2004/10/28>